

Session 11 수동적인 사랑을 적극적인 사랑으로 바꾸기 (마 5:43-48) (Replacing Passive Love with Active Love)

I. 도입

A.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21-48 절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6 가지 유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분노(5:21-26), 음행(5:27-30), 결혼의 신성함을 무시함(5:31-32), 서약을 지키지 않음(5:33-37), 보복함(5:38-42), 그리고 원수에 대한 수동적인 사랑(5:43-47)이 그것이다. 이것들을 뿌리 뽑음으로써, 우리는 생명력 있는 영을 가지게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5:13-16).

B. 제거되어야 할 여섯 번째 유혹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보다,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보복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승리를 향한 시작점이 된다. 그러나 이 승리는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지(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음, 5:38-42)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원수를 사랑함, 5:43-48)를 말씀해주셨다. 우리가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거절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과, 또 다른 이들과 가지는 관계의 많은 잠재적인 부분을 잃게 된다.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글 KJV: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 5:43-45)

C. 이 부분은 우리를 산상 수훈 중에서 가장 높고, 도전이 되는 부분으로 안내한다. 이 부분은 많은 이들이 칭송하는 부분이며, 어떤 이들은 이를 조롱하며, 대부분의 이들은 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D.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향해 침묵하며 보복하지 않는 것은 승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단지 그들과 수동적인 거리를 두는 것 이상의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저는 그들을 미팅에서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그들과 같은 방 안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사랑하는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쓴 마음과 두려움과 맞서게 한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을 경험하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의 큰 진보를 일궈내는 곳이기도 하다.

E.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확대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의 가족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한 자기 방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F.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비틀어놓은 사랑에 대한 명령을 교정해주셨다. 그들은 “너 자신과 같이”의 부분을 빼버리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명령을 더함으로 이를 제한해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 유대인들을 이웃으로 여겼지만, 외국인(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명령을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과 자신들과 같은 동류의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제한했다(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사랑치 않고). 그들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보다, 자신들의 동료 유대인을 향해 보복하며 살았고, 외부인들에 대해 인종 차별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43)

18...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4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 (레 19:1, 34)

G.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눅 10:29-37),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웃이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우리의 이웃에는 우리의 원수들도 포함된다.

II. 원수를 사랑함 (마 5:44)

A. 우리의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의 언어(축복)와 행동(선대함)과 기도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것은 사랑의 최고 정점이며, 실제적인 행동을 수반하기에 단순히 감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이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감정은 변화될 것이다.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글 KJV: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1.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깊이, 가장 큰 충격을 남긴다(특히 순교). 이 삶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 영역이 열리게 된다. 우리의 원수란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대적들을 말한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 5 ...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2.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하며, 그들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욕을 똑 같은 모욕으로 맞서기를 거절하며, 그 이상을 행해야 한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가혹한 노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자유케 할 것이다.

3.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4.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틈에 서게 된다. 이는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도록 한다. 우리가 어떤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눅 23:34).

B. 우리는 원수를 향해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롬 12:21). 바울은 로마서 12:20 절에서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한 구약 말씀을 인용했다(잠 25:21).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4-21)

- C. 우리가 이 구절을 이겨내야 할 유혹, 즉 수동적인 사랑을 이겨내야 하는 부분으로 본다. 이는 다른 다섯 가지의 권고가 제거해야 할 유혹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마 5:21-42). 또는 산상 수훈의 다음 부분이 설명하고 있는(마 6:1-21), 우리가 추구해나가야 할 다섯 가지 하나님 나라의 행동 중 하나로 본다. 이 구절은 원수를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 정성을 들여 설명하고 있다(마 6:14-15).
- D. 악한 자를 저주하는 시편(저주시)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담고 있다(시 5 편; 11 편; 17 편; 35 편; 55 편; 59 편; 69 편; 109 편; 137 편, 140 편, 등). 이 기도들은 시편 기자들의 개인적인 분노나 상처로 인해 드리는 것이 아닌,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목적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저주의 시편들은 현재 시대의 각 개인을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들을 옹호하는 시편들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사역의 마지막에 자신을 죽인 지도자들을 심판하며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다(마 23 장).

III.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되기 (마 5:45)

- A.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축복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시기에 그렇다. 그분은 악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한 그분의 축복을 그분이 그들에게 동의하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 5:45)

- B.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common grace)라고 말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saving grace)과는 구별된다. 일반 은총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구원의 선물과는 다른 것이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롬 5:10). 우리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우리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이 감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지 않으시며, 감사하지도 않고 악한 상태임에도 사랑하신다.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눅 6:35)

- D.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원수들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충분한 이유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을 학대할 때, 당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

IV. 어떤 상이 있는가? (마 5:46-47)

- A. 믿지 않는 자들도 결혼한 자들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우정 안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 세리(탐욕스럽고 교활한 자)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가지는 자연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 5:46-47)

- B. **상급(Reward)**: 예수님께서서는 종종 우리의 행위와 겸손에 대한 영원한 상급에 대해 가르치셨다 (마 5:5, 12, 19; 6:4-6, 18-20; 10:41-42; 16:27; 18:4; 19:21, 28-30; 20:16, 27; 22:14; 23:11; 25:21-23; 막 9:41; 10:21, 42-43; 눅 6:23, 35; 9:48; 12:21, 33; 14:11; 16:11; 18:14, 22; 19:17-19; 22:26-30; 요 12:26; 계 2:7, 10-11, 17, 26-28; 3:4-5, 9, 11-12, 18, 21; 11:18; 16:5; 19:7-8; 22:12).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 (마 5:11-12)

- C.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이와 같다, “만일 네가 나에게 잘못 대하면, 나도 네게 잘 대해줄 수 없다. 네가 나에게 잘 대해준다면, 나도 네게 뭔가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본성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는 것이다. “선한 일에 대해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선한 일에 대해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일이며, 악한 일에 대해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알프레드 플러머, 1852-1916).

V. 성경적인 관점을 소유하기

- A. 나와 대립(대적)되는 관계의 사람들을 향해 기도할 때, 나는 나 자신을 현재의 폭풍을 넘어서 진리의 큰 그림으로 이끄는 몇 가지를 발견했다. 나는 세 가지 진리에 초점을 맞춰본다.
- B.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학대 받을 때 보복하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며 세우고 옹호하실 것을 앎으로 우리가 흑사당한 것들을 그분께 맡김으로, 그것들을 은혜롭게 견딜 것을 말씀하신다 (벧전 2:23).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오직 다윗만이 다윗을 멈출 수 있었다.

23 (예수님께서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

- C. **큰 그림을 보기**: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함으로 인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비롭게(간곡하게) 대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비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원수들에게 자비롭게 말할 수 있다.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 50:20-21)

- D. **영원한 친구들:** 현재의 그리스도의 몸 안의 우리의 가장 큰 대적들은 다가올 시대의 수 억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될 것이다.

VI. 온전하라: 하나님께 비추시는 모든 빛 가운데 걸어감 (마 5:48)

- A. 예수님께서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모든 빛 가운데 거함으로 **온전해질** 것을 초청하신다. 우리에게 조명해주시는 빛에 대해 100 배의 순종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상대적인 일**(역자주: 각자에게 다른 분량)이지만, 다가올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를 상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으며, 다가올 시대에서는 충만함에 다다를 수 있다.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 B. 아버지 안에는 모든 빛이 있다. 그분의 모든 계획, 행하심, 자비, 심판들, 지혜는 그분의 빛과 완전하게 일치한다. 아버지께서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빛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C.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량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구하는 전부이다.
- D. 우리가 성령님의 빛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분량을 드러내게 된다.

9...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빛을 보리이다 (시 36:9)

- E. 우리 삶의 능력은 우리가 100 배의 순종을 추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추구해나갈 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98%의 순종에는 제한적인 축복이 임하지만, 나머지 2%로 인해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심령을 가지게 된다. 수 십년 동안 충만한 순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과격한 삶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예외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과격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다.